

2023/6/25(주일) 은혜교회 주일 강단 / 설 교 : 박대찬 담임 목사
본 문 : 행18:1-11 / 제 목 : 전도자와 종직자의 모델!

♣서론- 할렐루야! 신앙고백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진짜로 신앙생활이 해보면 해볼수록 재미있고, 은혜 되고, 감격이 되어 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면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 목회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목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애 먹고, 속 터지게 하고, 진짜 무거운 짐 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신앙생활 대강하는 게 쉽겠는가, 진짜로 하는 게 쉽겠는가? 대강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 그런데 대강, 대강 하면 시간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렵다. 책문과도 상관없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면, 시간 갈수록 어떠한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된다. 기도응답이 온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 지는데, 내 힘과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 할 수 있는 역사가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은 진짜로 공부하는 학생이다. 혹여 손자가 태워 다닐 때가 있는데 물어본다. 공부가 힘들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다. 그 손자는 공부 잘하는 손자다. 그런데 어떤 손자는 공부 힘 안드느냐? 수학은 하기 싫어 죽겠다고 하고, 어떤 손자는 수학은 재미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면 공부가 재미있다. 시험이 두렵지가 않다.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가? 주님이 현상이 어려운 줄 알고 말씀하셨다. 볼지더냐,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기준 놔두고 다른 기준, 사람 보는 기준, 사람들이 의식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 기준, 세상 레벨, 거기에 맞춰서 신앙고백 하니까 가탄이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사탄은 여러분을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볼지더냐,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요즘 제자 반을 하라고 해서 제자 반을 받고 있다. 내가 무슨 신비,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냥 기본을 자주 말씀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냥 육신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진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다 잃어버렸다. 언제냐? 창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만나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다. 마귀가 종으로 삼고, 얼마나 데리고 노는지 모른다. 이 사실 모르면 목회자 아들이라도 그냥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 갖고 모든 생각을 갖고 논리를 펴서 얘기하는데, 그게 니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 정신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죽을 때에 고통받으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진짜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히 들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세상 기준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니까 머릿속에 전부 세상 기준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이게 안 맞다. 이 사람, 저 사람도 안 맞는 것이다. 그러면 안 맞는 사람만 만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실을 누리면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사실 놔두고 다른 것 갖고 살게 되면 누가 옆에 붙느냐?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 붙는다. 진짜 놀음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붙게 된다. 진짜 술 먹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술꾼이 붙게 된다. 오직 복을 얘기하면 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붙게 된다. 교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전도자, 복음 있는 종직자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 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 원망하는데 하루는 편찮을 것이다. 그 1시간은 편찮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또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역사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계속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말씀 성취 되는 것 얘기하고, 은혜 되는 것 얘기하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다르게 된다. 솔직하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만 알게 되었다. 조금 방향 다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신학 같이 했고,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고, 신학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젊고, 팔팔하고, 이런 사람들과 지금 만나서 말하면 어찌 되느냐? 이견 천지 차이가 된다. 그 분들이 나를 만나서 대화 해보라고 해도, 이제는 거리가감이 있어서 오히려 대화가 안 될 정도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언제인가? 조금 내가 아는 것이다. 많이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알고, 조금 누리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괴리가 생긴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만 받는 게 아니다.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요14:16-17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종교와 복음은 시작부터 다르고, 그러면서 결음도 다르게 된다. 히13:8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달랐고, 사도 바울에게는 달랐고, 오늘 나에게는 다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다. 그러면 누가 달랐는가? 우리가 달랐던 것이다. 누가 바뀌어 되었? 영원히 그리스도를 바꾸라고 얘기해야 되었? 빨리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축원한다.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중요하지 않는 것 갖고 계속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된다. 체질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세계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된다.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학교가 좋았을까요?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환경도 열악하고, 오늘 6.25다. 50년에 이 6.25 때 터진 사건 이후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런 시대에도 새벽에 나와서, 그때 새벽에 불 피웠는가? 저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한 번씩 새벽기도 가본다. 불 피우지 않는 새벽 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처럼 되어 진 것이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좋은 환경에 속으면 마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마약하게 되고, 더 게임에 빠지고, 누구의 책임이냐는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많은 지식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손주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 사실 놓치고 사는 것이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전도자와 종직자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대강 믿어서 되느냐? 대강 믿지 말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대강 믿어서 그렇다. 진짜로 믿으면 된다.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본론

1.항상 유지할 복음(선교)의 영적 감각→ 항상 유지할 복음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실수한다. 브리스가 부부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맨손으로 고린도에 오게 된다.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그냥 망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망할 수가 있고, 텅텅이 될 수 있다. 또 잘해도 그럴 수 있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고, 그게 오늘 본문이다. 대 사도인 바울이 최고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아덴의 사역에 그냥 실패하고 지금 온 것이다. 하나님 제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 세울 종직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싹싹 빌고 믿어지게 되고, 씻어주고,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너무 기대했다. 학문의 도시이고, 그리고 교양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 바울이 자기 배운 지식, 철학 갖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우상, 많은 지역에 전도했는데 변론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서 시련에 빠져서 그냥 고린도에 온 것이다. 전에 같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옮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핍박자도 없었다. 그리고 위에 남겨둔 디모데와 실라가 분명히 오기로 되었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시련에 빠져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냥 논쟁만 하다가 오게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논쟁 내려놓기를 축원한다. 아무 소득 없다. 얼마나 소득 없는 논쟁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다. 훌륭하게 목회, 성공하게 목회 하시는 어른들이 논쟁이 별로 없다.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비난, 비방보다는 내 교회 놓고 기도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아멘은 전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 거기에 지식이 통하는가, 철학이 통하는가? 아무것도 안 통한다. 오히려 지식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하면? 복음이 필요하다. 바울이 나중에 그거 깨달았다.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클라우드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는 로마제국의 수도다. 왜 떠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벌써 행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 통해서 벌써 로마에 복음이 증거 되기 시작했다. 벌써 거기에 황제 집안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 시대에는 그처럼 급격하게 복음이 증거 되기 시작했다. 복음이 증거 되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제사장, 귀부인, 이방인도 돌아오고, 그런데 완악한 생각 가진 유대인들은 대적을 하게 된다.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유대인들과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니 클라우드오 황제가 너희 나라도 아난데 이 땅에 왜 싸우고, 시끄럽냐? 전부 나가라고 추방한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상권을 다 갖췄었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생활이나, 사업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것을 아셔야 된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다, 실패가 실패 아니냐, 오히려 성공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할 자격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된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다. 괜히 몰라서 나는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언덕에서 차를 굴렀는데, 종직자 분 중에 있잖아요? 굴렀는데 차는 박살나고 본인은 멀쩡하다. 제가 또 어디 설교 듣다가 그러더라. 누가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층들이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른다. 못 죽었다고 한다. 왜냐? 한강에 보니까 구조대가 와서 왔다, 갔다 해서요. 차를 굴렀는데, 종직자 분 왜 이리저리가는가? 빠져 죽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 우리 성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알고 보니까 불신자 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나중에 시간 흘러서 예수 믿었다. 하나님이 벌써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이다. 실패 놔두고 뻔뻔하게 하란 말도 아니다. 저는 그것도 싫어한다. 실패가 실패 아니고,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바울이 이 시련 속에서 고린도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

한다. 고전2:2-3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선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한다. 왜 고린도에서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중점 뒀구나, 오늘 대구 지역에 불교 성지라고 하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약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마약에 휩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더 알지 않기를 축원한다. 다른 것 갖고 되느냐? 안 된다. 바울이 그 말이다. 무슨 말인가? 아덴에서 안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 오면, 이 도시는 더 심한 도시라는 것이다. 더 항락 도시라는 것이다. 심히 떨었다, 바울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 외에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뭐로 했는가? 철학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지식으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난 주의 성령, 내게 빛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제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지금 말씀한다. 고린도 선교에 성공 후에 나중에 이처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싸운 것 때문에 쫓겨나왔다. 모든 것 다 놔두고 나왔다.

▶그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한 사도 바울이다. 그게 로마에서 돈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 분들이 사업하다가, 이유도 모르고, 어려웠는데 은혜교회에 왔는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종직자를 만났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동역이 되었다. 최고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축원한다. 물질이 기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랑 만나게 했느냐? 중요하다. 바울은 복음의 영적 감각을 오직의 감각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는가? 행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받고, 행1:8의 산업인을 붙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롬16장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놓았다고 한다. 어떤 모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건 인물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를 당하든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 모든 일에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한다. 그러면 누구 만나느냐? 영적 감각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이 없다. 늘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내 머리 속에는 어둠이 잡히고, 그게 하루, 이틀, 3일이 가면 심령 상하고, 뼈가 상하고, 건강이 상하고,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하기 좋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유지해야 될 복음의 영적 감각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2.전도자와 종직자의 원네스→ 전도자와 종직자의 원네스다. 두 사람이 만났다. 폭발 같은 일이 일어난다. 교역자와 종직자가 만났다. 여기다가 누가 내려오는가? 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합류한다. 혼자 사역보다 두 명 사역이 더 낫다. 두 명보다 4명이 사역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팀 구성하기를 축원한다. 포럼 팀을 구성하고, 제자 팀을 구성하고, 산업인 팀을 구성하고, 거기다가 램네프를 끼우고, 제자 처음에 국정제도 만들고, 거기다가 젊은 집사님도 넣어두고, 젊은 램네프도 있고, 팀 구성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불려서 같이 그 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논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갖고 해보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다보면, 우리 교회의 디자인 한 것을 보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분, 일본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잖아요? 은혜교회 오니까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우리 구자도 장로님 그러시더라. 처음 시작하고 할 때에 옥 엄청나게 두루마기가 많이 했었다. 세월 지나니 젊은 분들이 한 것이 훨씬 지금 좋아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 우리 종직자 중심으로, 교육 기관 중심으로 팀 이루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교육기관, 팀을 이뤄야 된다. 제자 반도 팀을 이루어야 되고, 치유 팀과 선교 팀, 산업인 팀도 이루어야 되고, 오늘 보시라. 3-5월까지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실라와 디모데가 연합해서 사역했는데, 얼마나 사역해야 될 내용인가? 1년 6개월, 다른 데는 3일 있다거, 물론 핍박 때문에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인지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이 팀이 있으면서 사역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팀을 이루면 폭발력이 있게 된다. 3절이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연합이자 원네스다. 우리는 업, 장막 만드는 것, 통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 색깔도 통해야 된다. 갈보리산, 감람산 40일 집중 신앙 색깔 통해야 된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통해야 된다. 선교 마인드도 통해야 된다. 원네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 바울과 선교 마인드가 통해서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 놓고 기도하고, 직업 놓고 기도하고, 인생 전체 놓고 기도하면서 목회자와 기도제목을 통하고, 램네프와 기도제목을 통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방향과 기도제목을 통하기를 축원한다. 그게 중요하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는 누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실체적으로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 결정 된 것을 알려주라고 보낸 인물이다. 디모데는 누군가? 2차 전도여행에서 돌 맞은 루스드라 성에서, 건져낸 제자다. 사역의 전문성 길러진 사역자들이다. 교역자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브리스가 부부 종직자, 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가치고 있는 의사와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되고, 종직자들은 교회에 든든한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된다. 그래서 생명 건 자가 되고, 보호자, 식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폭발력이 일어난다. 모세가 가서 장로들에게 말했는데, 장로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 날,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성 돌 때에 유사들에게 말했다. 입 떼지 마라, 이거 돈다고 되느냐? 헛소리 말고, 그냥 입

닫고 돌아라, 다 같이 하나가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두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기를 축원한다.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진다. 불신앙 하는 사람은 꼭 보면 그런 기간에 불신앙한다. 만일에 제가 그 말 믿었다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내아이 주시면 사무엘처럼 드리겠다고 했다. 21살까지는 집과 교회, 학교밖에 모르고 자랐으니 옆에 분들이 장 권사님의 기도대로, 잘 자라구나, 신학교 잘 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계가 와서 그만 두고, 군까지 합하면 23년, 군 빼면 20년 정도 야곱처럼 방글 돌 때에 불신앙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평생 기도한 게 헛것이네? 그게 불신앙 자들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 언약 놓고 한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어야 된다. 지금 안 되었다고 그게 안 된 게 아니다.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집을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불신앙 하는 요소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들으신다. 요즘 저 보면 옛날에 그 얘기하던 것이 다 쑥 들어가고 없는 것이다. 지금 가서 리어카 끌고 그러느냐? 뭐하려고 그러느냐? 네만 공부하면 되느냐? 애들 어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자녀를 공부시킨 것이다. 여하튼 문제와 지금 상황에 속지 않기를 축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만 하지, 가정 대놓고, 교회 대놓고 불신앙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라.

3.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역사 일어나야→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다.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지역에 어떠한가? 역사가 일어났다. 고린도가 얼마나 방탕한 도시인가? 고린도 소녀와 같다고 하면, 그건 매춘하는 여자란 뜻이다. 고린도의 소녀들은 못 쓰는 여자들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여 사제들이 전부 매춘 여자들이다. 그 도시가 어떠한 겠느냐? 거기에 브리스가 부부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들은 헌금도 하게 되어서 바울이 전도와 선교 하도록, 물론 그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초대교회에 손꼽히는 교회가 되었다. 사업가, 무역의 요충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대구 지역에 어느 날 불교 성지라고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램네프 데리고 한 번씩 선교 의료 박물관에 갔다. 거기에 기록을 보라고 한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누워 있는 곳에 있다. 거기 가서 집중 안 되니까, 집중도 시킨다. 눈 감고 5분이라도 있으라고 시킨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하지 5분 눈 감고도 있지 않으려고 한다. 일부로 무덤에 데리고 가서, 거기 은혜의 동산이라고 해서 적힌 게 뭐냐? 이 대구 도성은 선교사가 다윗의 땅대 같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더니깐요? 저는 시골에 있었지만 저희 큰 아버님이 남산 교회에 목회 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듣고 자랐다. 어느 날 내가 대구 와서 공부하고, 전도와 선교, 별로 몰랐다. 어느 날 알고 보니까, 40-50년 지났는데 불교 성지라고 되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있는 지역과 장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누구 책임인가? 지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우리 후대다. 지금 대구에 살고 있으면 대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직장이 있으면, 내 직장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고, 내 지역에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떠밀려 나오지 말아야 된다.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업하고, 다시 에베소 지역, 로마로 가서 나중에 바울이 들어올 때에 세계복음화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 집이 살아나고, 내 직장에 증거가 있고, 내 사는 지역에 흑암이 꺾인다.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밀려낸 안 된다. 어려운, 불신자가 제대로 똑똑하면 못 건드린다. 한 장로님이 신자 인지 모르겠다. 워낙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니까, 학교 다닐 때에 일진들이 뭐라고 해요?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말자, 진짜 엘리트로 자라니까 이상한 국회의원,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냥 엘리트로서 바른 말을 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한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우리 후대들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모든 산업인, 종직자, 교역자, 원네스가 되어 가정 살리고, 대구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결론- 결론이다. 종직자, 브리스가 부부는 70인이다.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분이 축복의 대명사더라. 서리 집사 받을 때와 안수 집사 받을 때와 영적 감각이 다르더라. 완전히 유격 훈련 같다. 그런데 목사 직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담임이 되니까 또 다른 은혜 주시더라. 그냥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이제 대구 살아날 것 같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인 줄 알고 대표적인, 모델적인 축복 받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종직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한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시련에 빠질 수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산업이 날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종들은 복음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내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진짜 브리스가 부부처럼 주의 종과 만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산업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모델의 종직자 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종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end)